

석유화학 선방에 정유는 침체

3/4분기 영업이익 LG화학·LG석유 2자리 증가 ... SK·S-O일은 감소

석유화학기업들의 3/4분기 경영실적이 양호했던 반면, 정유기업은 다소 어두운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 침체와 경영 불확실성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기업들의 3/4분기 실적은 2/4분기에 비해 크게 나아지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10월18일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들의 2006년 3/4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당기업들은 2/4분기에 비해 개선되거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적을 보이며 환율, 유가, 경기침체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선방했다.

주요기업들은 최고의 실적을 보였던 200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2/4분기를 저점으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4/4분기에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치고 있어 연말 실적 전망도 좋아 보인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LCD, 핸드폰 등의 선전에 힘입어 2006년 3/4분기 매출 15조2200억원, 영업이익 1조 8500억원, 순이익 2조1900억원 등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LG필립스LCD는 3/4분기에 분기별 사상 최대인 38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2/4분기 연속 3000억원 대의 적자를 보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향후 경영실적 개선 노력이 주목된다.

LG석유화학은 시황 호조에 따른 주요 제품가격 강세와 생산능력 확충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인 6418억원의 매출에 당초 기대치를 웃도는 92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11% 가량 증가했는데 LG석유화학은 “4/4분기에도 양호한 수급 상황으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가격의 강세 지속, BPA(Bisphenol-A) 사업의 수익성 호전, 국제유가 안정세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감소 등으로 고수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LG화학은 2/4분기에 비해 늘어난 것은 물론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34.2%, 영업이익이 17.4%,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2.7%, 46.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또 4/4분기에 대해서도 “석유화학 부문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일부 제품의 일시적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유, 나프타 등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전체적인 실적은 2/4분기를 저점으로 상향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최악의 성적표를 제시한 국내기업은 LG필립스LCD로, 분기별 사상 최대 규모인 3820억원의 영업손실을 비롯해 순손실 321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나아가 4/4분기에도 LCD TV용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실적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질유 재처리를 통해 휘발유, 경유를 만들어 내는 고도화 설비 비율과 수출 비중 차이에 따라 희비가 다소 엇갈리겠지만, 정제마진 악화 등에 따라 정유기업의 3/4분기 실적은 대체로 어두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월24일 실적을 발표하는 SK는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0.2%, 34.7% 감소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추정했으며, 2/4분기 283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GS칼텍스도 3/4분기에는 2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고도화 설비 비율과 수출 비중이 높은 S-Oil은 2/4분기(2842억원)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5년 3/4분기 1923억원에 비해서는 적지않게 늘어난 24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8>